

9.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25일
- 발 의 자 : 이시복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송영현 의원, 이만규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11월 22일)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우 의원)

□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환자들의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³⁰⁾·완화의료 및 웰다잉³¹⁾ 문화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안 제4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0) 호스피스(Hospice)는 미국 호스피스협회(NHO)에서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원환자와 가정 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한국에 진출한 호주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이 1965년에 강릉에서 가정 호스피스로 시작한 ‘갈바리 의원’이 한국 호스피스의 효시로 알려져 있음.

31)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말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임.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의 기본 목표와 방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는 생애말기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7조제1항은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민간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위탁근거로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음.
-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된 용도나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본 조례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8개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더불어, 가정형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문 형태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대구시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호스피스 관리체계 구축과 호스피스와 관련된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통한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존 운영되는 기관과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도 있는 만큼,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별 특화된 업무영역의 확보와 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과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말기환자와 그들의 가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개선, 호스피스 지원사업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제7조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수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위탁) ② ---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	제7조(위탁) ②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웰다잉 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2.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입원 또는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3. 지원체계 구축
4.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전문교육 인력 및 지도자 양성 사업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호스피스·넌)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넌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